‘스타워즈 시리즈’에 숨은 불교 철학은?

노팅엄대 리 클라크 박사 논평

우주 힘, 각 생명체 에너지 장
모두 연결됐단 불교 원리 같아
‘무상’ 가치 받아들인 제다이
자신 몰락의 ‘삼독’으로 이해

박정현 객원기자



스타워즈 포스터. 사진출처=디즈니

“철학자이자 불교도로서, 또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으로서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 속 ‘제다이’란 집단의 세계관에 나타난 불교적 철학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배우 이정재가 주연으로 발탁된 스타워즈 시리즈의 실사 드라마 ‘더 애콜라이트’가 한창 촬영 중인 가운데 역대 스타워즈 시리즈 속 불교적 요소에 주목한 논평이 이목을 끌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 노팅엄트렌트대학교(Nottingham Trent University)의 리 클라크(Lee Clarke) 철학박사의 논평이다.

리 박사는 지난 12월 6일 비영리 미디어 플랫폼 ‘더 컨버세이션 닷컴’(theconversation.com)을 통해 “조지 루카스 감독의 SF영화 ‘스타워즈’가 1977년 처음 영화계를 강타했을 때 그 영화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우주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종교이자 철학인 불교와 도교의 요소를 놓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리 박사가 주목한 스타워즈 시리즈 속 불교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는 우선 오리지널 스타워즈 영화에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인 오비완 케노비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힘’에 대해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장”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제다이는 영화에서 평화를 숭상하는 무력조직 및 학자 겸 수도사 집단으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는 그들의 대표자이다.

리 교수는 “우주를 이루는 ‘힘’이 각 생명체의 상호연결을 통해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불교 원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스타워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불교 철학은 ‘탐욕(貪欲)’에 대한 내용이다. 영화에서 제다이의 그랜드마스터는 구성원들에게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을 떨치기 위해 제다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결혼하고 가족을 갖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리 박사는 “불교에서 ‘고(苦)’로 표현되는 고통이나 불만은 ‘갈증’을 의미하는 탕하(tanha)에서 비롯된다”며 “인간은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의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고통스러워한다. 갈애의 뿌리는 ‘삼독’인 탐진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다이는 ‘무상’이라 불리는 불교의 또 다른 가치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신을 몰락시키는 것이 ‘삼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며 “그들의 집단에서의 모든 가르침은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애콜라이트’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1999)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하이 리퍼블릭 시대’를 배경으로 우주의 어두운 비밀과 다크사이드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국내 유명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스타워즈의 감독이자 세계적 명장인 조지 루카스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났으나 지금은 불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맨섬에 최초 불교 사찰 문 열다

태국 커뮤니티 후원으로 태국 사찰 건립

영국 맨섬(Isle of Man)에 최초의 불교 사찰이 문을 열었다.

맨섬의 지역 언론인 맨섬 투데이(Isle of Man Tody)는 지난 12월 12일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웰빙과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 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맨섬의 동부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태국 사찰을 소개했다.

주지 스님은 태국에서 온 마하 곤(Maha Gone) 스님이다. 해당 매체는 “마하 곤 스님은 사찰 창건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 “이 사찰은 지역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서적 수양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마하 곤 스님은 “이 지역에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불교와 태국 문화를 공유할 공간이 전무했다”며 “사찰은 수행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태국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전통적으로 스님들은 영적 인도와 정서적 지원, 명상 교육 등을 신도들에게 전파했다”며 “사찰이 이 섬에 문을 열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이러한 가르침을 열망한 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했다.

현지 태국인 커뮤니티는 이번 사찰 건립을 위한 자금 마련도 전적으로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나는 승려로서 이 사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며 “사찰은 승려가 아닌 신도들의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자비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찰은 지난 12월 11일 대중에게 공식 개방됐다. 향후 명상과 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출 계획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영국 맨섬에 설립된 최초의 불교 사찰. 사진출처=맨섬 투데이

“CEO로서 받는 압박…불교로 극복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저명 CEO 테인 로리

‘더 부디스트 CEO’ 발간해
불교와 비즈니스 고민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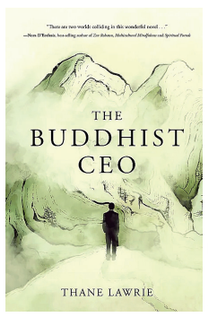
“대규모 조직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거대하다. 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균형을 찾기 위해 불교를 수행했다.”

뉴스와이어 등 복수의 외신 매체에 따르면, 12월 13일 저서 ‘더 부디스트 CEO’를 발간 테인 로리(Thane Lawrie)는 리더로서 받는 압박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직접 느낀 인물이다. 오랫동안 대규모 비영리 조직을 이끌며 영국의 저명한 CEO로 인정받았지만 급격한 건강 악화로 지난해 은퇴했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그를 지탱했던 것은 불교다.

뉴스와이어는 “로리는 지난 25년간 지도자이자 불교도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책을 펴냈다”며 “현대사회의 CEO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적 탐구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소설 ‘더 부디스트 CEO’의 주인공 해미시(Hamish)는 어느 날 불교 승려를 우연히 만나 출가를 꿈꾸지만 가족과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비영리 단체의 CEO로 일하게 된다. 수년동안 CEO로 일하며 그는 경영 철학에 불교를 투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내적 수행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테인 로리의 저서 ‘더 부디스트 CEO’. 사진출처=뉴스와이어

절을 찾아 평화와 내적 안정을 좇는다.

저자 로리는 “해미시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면의 혼란을 경험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거듭하지만 직원들과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도덕적 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리는 “그는 불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경영을 시작하며 해답을 찾는다”며 “그런 변화를 통해 회사를 큰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젠 로하츠’(Zen Rohatsu)를 펴낸 노라 데클레시스는 로리의 저서에 대해 “마음챙김 선 수행자의 관점에서 불교를 개인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이 담긴 책”이라며 “평점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

테인 로리는 애버딘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대규모 비영리 조직의 CEO로 일했다. 그가 해당 조직을 맡은 7년 중 무려 6년간 영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테인 로리의 저서 ‘더 부디스트 CEO’는 온라인 구매 사이트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하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17개 불교사원 대대적 보수 나선다

약 23억 6000만 원 투입
“다양한 신앙 공존 위해”



태국 불교사원의 모습.

태국정부가 100년 이상 된 불교사원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에 나선다.

태국 매체 Thai PBS WORLD는 12월 12일 “정부 부대변인 라차다 드나드렉이 송크라, 파타니, 얄라 및 나라티왓 지방에 있는 17개 중요사원에 약 6300만 바트(한화 약 23억 6000만 원)를 투입, 보수할 것을 다음해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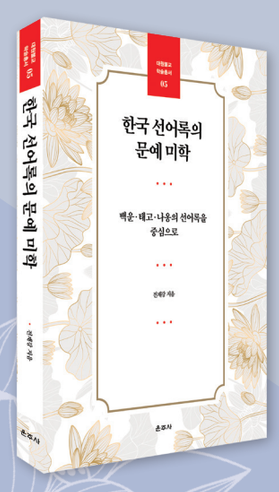
이날 발표에 따르면 17개 사원 보수 후에는 외딴 지역에 있는 7개 사원과 고대 유적지도 순차적으로 보수된다. 무슬림이 우세한 지방의 경우 반군이 수십년 동안 벌인 무력충돌로 인해 방치돼 수리 및 개조가 필요한 사원이 140여 곳에 달한다.

라차다 부대변인은 “이 지역에서 소수인 불교도들과 각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함은 물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래된 사원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며 정부가 주도해 보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보수 작업은 남부 국경 지방 행정 센터, 국립 불교 사무소, 미술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가佛家문학과 선가禪家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대원불교학술총서 • 5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을 중심으로

전재강 지음

운주사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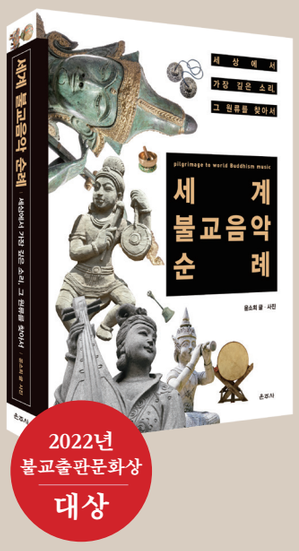
고려 말의 뛰어난 선사로서 특출한 선시와 어록을 남긴 백운, 태고, 나옹의 문학을 선적 통찰과 문예 미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전재강 지음/신국판/312쪽/값 20,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세계 불교음악 순례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각국의 불교음악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지음/사륙배판/440쪽
값 28,000원



재미있는 만화로 만나는 용성 스님 일대기!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